

이와테 국제교류

봄
Vol. 74

2013

Iwate International Exchange



특집 ▶ 동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다

- 01-02 그 날 이후 재외국인과 협회의 지원활동
- 03-04 숫자로 보는 3.11 ~ 재외국인과 이와테의 국제관계 ~

07-08 Close Up

이와테 식재료로 지역 활성화를!
Joao's Kitchen Chatons 요리사 Joao Santos
이와테현인인 것을 의식하며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회장 치다 히로아키

- 09-10 2013 년도 협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그 날 이후 재외국인과 협회의 지원활동



3.11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방문하면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한 피해의 참혹함을 실감합니다. 부흥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관계단체 관계자가 희생된 지역에서는 지금도 활동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피해한 재외국인 지원활동과 피해지 국제교류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날 이후,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겠습니다.

현내 피해현황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국내 관측 사상 최대인 마그네튜드 9.0의 지진(현내 최대진도 6약)이 산리쿠오키에서 발생, 그로 인한 쓰나미가 연안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와테현내 희생자는 사망 4,682명, 행방불명 1,1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완파 또는 반파된 가옥은 24,534 채로, 피난민은 최대 54,239 명까지 늘었습니다. 라이프라인의 피해는 정전이 약 76 만가구로 완전복구까지 78일, 단수가 약 18 만가구로 완전복구까지 133일, 전화불통이 약 6.6 만회선으로 완전회복까지 37 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약 16,000 채의 가설주택에 약 39,000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재외국인의 3.11

협회에서 인터뷰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상무이사 이나다 오사무

쓰나미에 대해서, “높은 곳으로 도망갔지만, ‘더 높은 곳으로’라는 외침을 듣고, 더 높은 곳으로 뛰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웠다.”, “지진 후에,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쓰나미를 몰랐던 나는 그저,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가끔 쓰나미가 꿈에 나온다.”, “애들 둘을 데리고 도망쳤다. 남편, 고모부부, 시어머니는 ‘괜찮아’라고 말한 그 곳을 벗어나지 않아, 쓰나미에 휩쓸렸다.”라고 쓰나미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전달과 피난소 생활에 대해서, “‘통행금지’같은 도로간판과 티비의 지진정보 자막의 뜻을 몰라, 패닉에 빠졌다.”, “피난소에 일본어를 잘 모르는 중국인 연수생들이 있었는데,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물은 필요 최소한의 양을 소중히 사용합시다.’ 같은 규칙을 모르는 듯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혼났다.”, “음식과 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돈은 인출할 수 있는지 등 알고 싶은 정보를 영어로 얻지 못해서 힘들었다. 중요한 정보는 영어로도 안내방송을 해줬으면 싶었다.”, “피난소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 “한창 뛰어 놀 나이의 아들 둘과 피난소에서 하는 생활은 신경쓸 것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릴때면 ‘내가 중국인이라서?’라고 괴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외국인으로서의 곤란함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난소에서 지역분들과 상담하거나, 서로 도와주었다.”, “피난소에서는 일본인과 잘 지내기 위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진 후
생각은, “ 자원봉사자분들과 물자와 성금을 기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생각뿐입니다.”, “재



일 17년. 이와테에와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기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에 지진 직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와 “일과 집을 잃고, 오후나토를 떠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곳에서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라는 결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이 되어준 일본인도 있지만, 지진 후 이웃관계의 어려움이 느껴지며,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뜬소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친절하고 착한 일본인의 이미지가 조금 변했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남편을 남기고 귀국할수는 없다.”라는 복잡한 심경도 담겨있습니다.

지진 직후 협회의 대응

협회에는 국내외에서 현내외국인의 안부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안지역과의 통신수단이 끊겼었기 때문에, 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연안부의 국제교류협회 담당자도 쓰나미에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매일 기재되는 피난자 리스트에서 이름을 찾거나, 구글 사람찾기 서비스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전화가 복구되고 나서는 협회 네트워크에 닿지는 대로 연락을 취해, 연락이 된 분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한분한분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지진 직후부터 지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와 라디오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정보는 교통수단 정보, 지원물자공급 정보, 의료기관 정보 등 다양한 생활관련 정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외국인, 해외언론 등에서 귀국 방법과 귀국지원금의 소개, 숙박시설 소개, 취재지역 소개, 자원봉사 접수처 소개 등 다양한 문의와 상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피재지 방문상담

지진 직후에는 휘발유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차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피재지에 들어간 것은 노선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3월 17일부터였습니다. 휘발유가 손에 넣은 후부터는 매일 각 피재지 피난소를 돌며 귀국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손전등이 부착된 라디오를 나눠주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거나, 피난소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이 많아 세밀한 서포트가 필요했기에 피재지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세분을 상담원으로 위촉, 가까운 곳에서 상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피재지에 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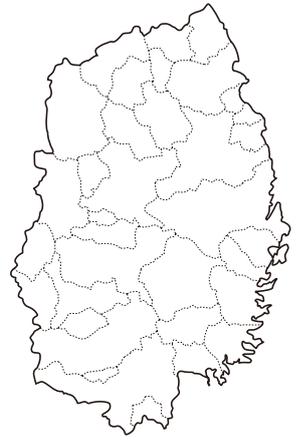
피재지분들을 상담하는 한편, 피재지의 국제교류단체 활동을 지원해 국제교류 이벤트 ‘원 월드 페스타’를 노다무라, 미야코시, 카마이시시, 오후나토시, 레쿠젠타카타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진 후 세계 각국에서 받은 격려와 의연금에 대한 감사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참가자분들에게 메세지카드를 작성받았습니다. 또, 모리오카 산사오도리에 피재지 외국인과 국제교류단체도 협회그룹으로 함께 참가해주셨습니다.

부흥을 향해서

이와테의 부흥을 담당하는 것은, 국적과 출신국을 따지지 않고, 이 곳 이와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테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이곳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와테라면, 일본인에게도 좋은 이와테 일 것 입니다.



숫자로 보는 3.11



재외국인과 이와테의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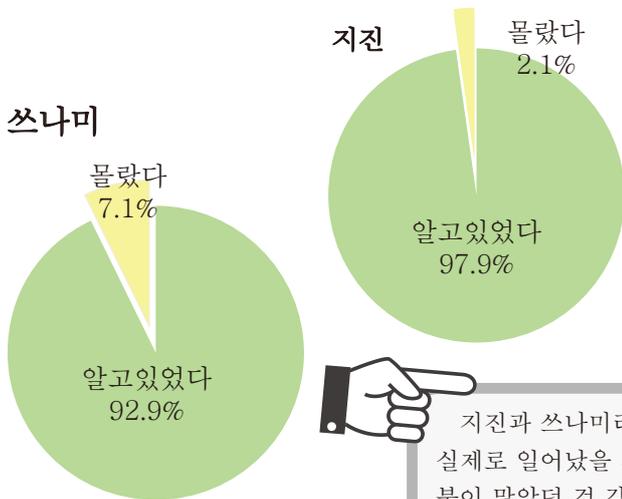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에서 2년, 이 지진은 ‘국제’라는 면에서 이와테현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이와테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자료를 통해 돌아보겠습니다.

《 재외국인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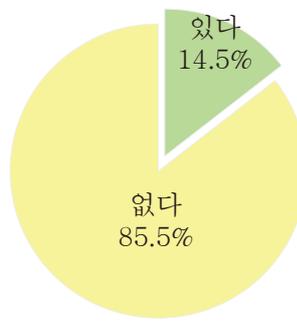
지진 전

현대 재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케이트 또는 인터뷰 형식으로 문답조사
조사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3월 응답자수 : 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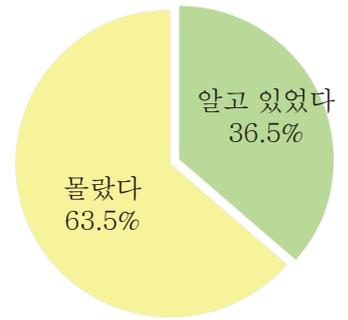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국에서 지진이나 쓰나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피난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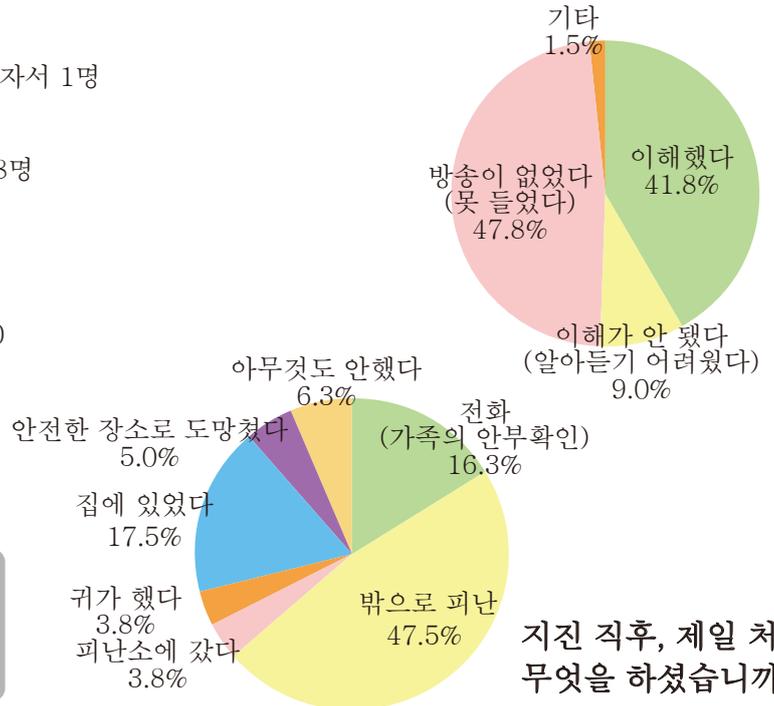
지진과 쓰나미라는 말을 들어본적은 있어도,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진 직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누구와 있었습니까?



피난 안내, 피난 방송이 이해되셨습니까?



국제결혼한 외국인과 연수생이 많았던 것과, 평일 낮에 일어난 것도 있어서, 지진 직후에 혼자있던 외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제일 처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와테에 사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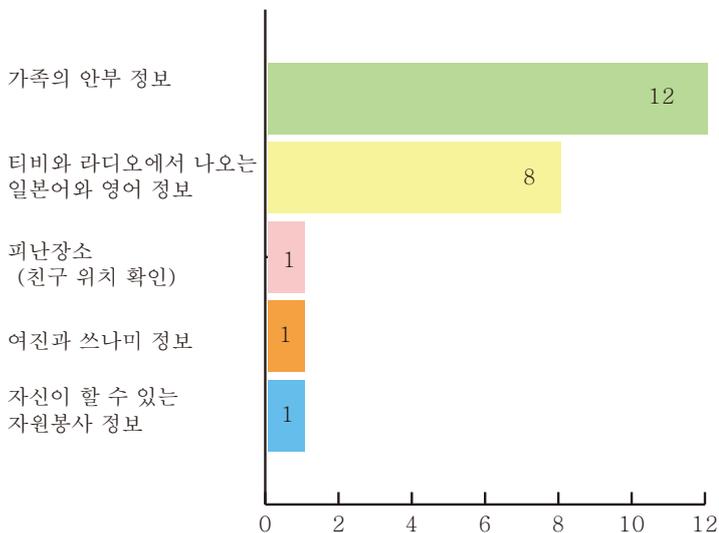
| | | |
|------|---------|--------|
| 지진 전 | 2009/12 | 6,210명 |
| | 2010/12 | 5,942명 |
| 지진 후 | 2011/12 | 5,267명 |
| | 2012/12 | 5,298명 |

이와테·외국인등록국적, 지자체별 인원 조사표



피난장소에서

피난장소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까?



피난소에서 곤란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지 못 했다.
- 식량과 방한용품의 부족
- 추웠다. 체육관에 1600명정도 있어서 앉지도 못 했다.
-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식량이 부족해서 자기 것을 남편과 나눠 먹었다.
- 의사 소통 문제
- 퇴근 길여서, 같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5일간 입은 것이 힘들었다.
- 식량, 약, 정보
- 여진이 계속되서 무서웠지만, 피난소에 있던 사람과의 대화로 정보를 얻었다.
- 피난소에서 지역분들과 상담하거나,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 외국인을 같은 피난소에 모으면, 정보교환이 쉽다.
- 개인 공간이 없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힘들었다.)

불안했던 것은?

- 중국에 있던 가족과 연락이 안 되서, 부모님이 걱정하셨을 것이다.
- 정전이 계속되서, 필리핀의 가족과 연락하지 못한 것
- 지진이 또 일어날까? 여진이 일어날까?
- 남편과 5일간 연락하지 못한 것
- 일본식을 싫어하는 친구에게, 주먹밥과 된장국을 먹인 것
- 나는 일본에 오래 살아서 자신의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 힘들었을 것이다.
- 라이프라인이 걱정이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다. (교통, 물 등)
- 앞으로의 일, 아이가 걱정이었다.
- 직장에 대해서 (이후에 계약이 연장되는지)
- 휘발유가 없어서 장을 보지 못해, 대가족의 식량이 다 떨어졌다.
- 피난소에 열흘이나 있었다.
- 쓰나미를 봐서 정말 무서웠다.
- 친척의 유해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
- 피난소에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 아이의 울음소리가 폐가 되지 않을까 신경쓰였다.
- 지병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지후에는 가족의 안부 여부와 식량 부족이 걱정이었습니다. 또, 일본인 피난자와 마찬가지로 피난소 환경에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모국의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물자 및 정보의 부족과 지진, 쓰나미를 목격한 공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 도시 교류와 외국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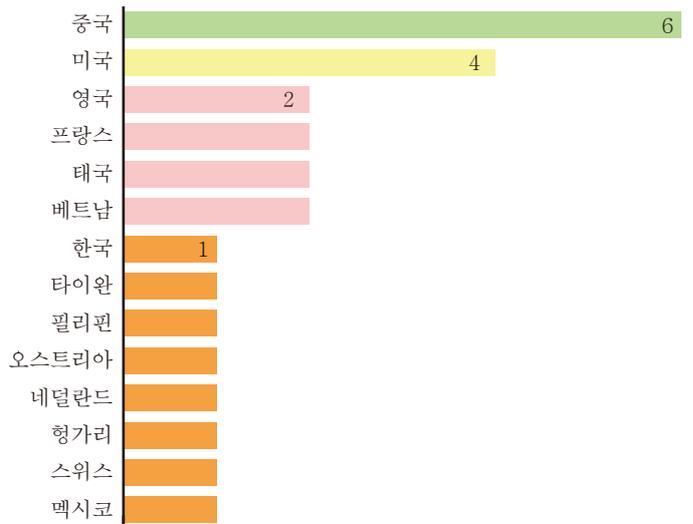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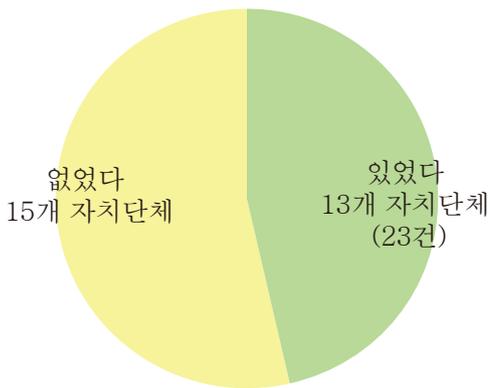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세계각국에서 지원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24개국, 지역의 긴급구조대, 의료지원팀, 복구지원팀이 활동했습니다. 또, 일본정부에 세계 163개국, 지역과 43곳의 국제기관에서 물자지원과 기부금 등의 지원 문의가 쇄도해, 국제협력의 의의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지원은 일본정부에 대한 것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이와테현내 각 지자체에도, 각국의 지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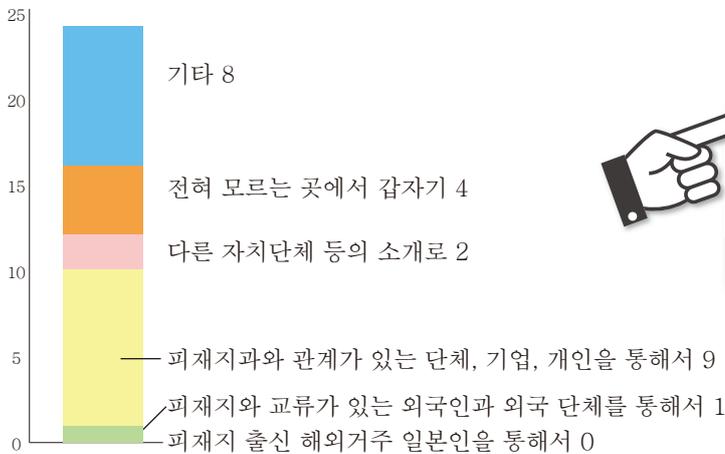
현내지자체(리쿠젠타카타시와 오츠치쵸를 제외한 31개시쵸촌)에 앙케이트 조사
 (이와테현립대학 공동교육센터 사토 토모코 교수와 공동조사)
 조사기간: 2011년 10월 ~ 11월 응답수: 28개 현내 지자체

■ 교류가 없는 외국 도시의 지원

교류가 없는 도시, 지역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도시, 지역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나라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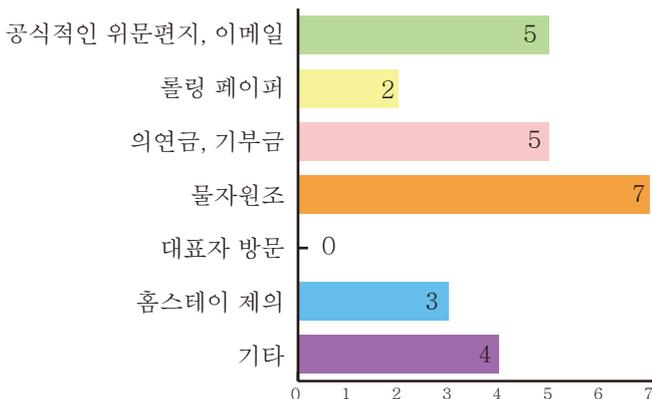


어떤 경로로 지원이 도착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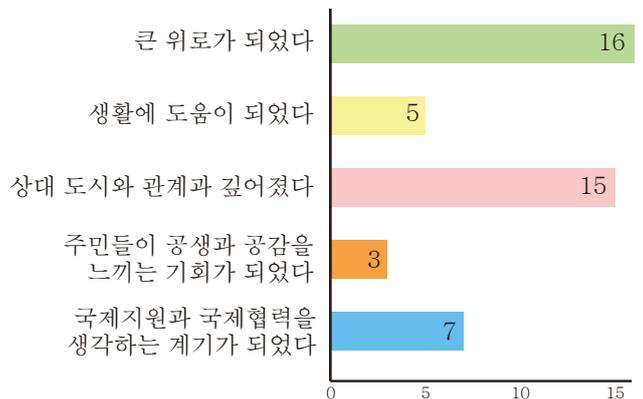


쿠지시에는 마을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스위스의 쿠지시에서 의연금과 기부금이 보내어졌습니다. 또, 오슈시에는 미국의 게이더스버그시에서 동위도라는 것과 서로 국제위도 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인연으로 위문 위패 등이 보내어졌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외국 도시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어떤 의의를 가졌습니까?



이와테현내 지자체의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현황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에 의하면, 현내 18개지자체가 28개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 | 제휴 자치단체 | 국가, 지역 | 자치단체 | 제휴 자치단체 | 국가, 지역 |
|--------|-----------|--------|--------|------------|--------|
| 모리오카시 | 빅토리아 | 캐나다 | 하치만타이시 | 알텐마르크 임폰가우 | 오스트리아 |
| 미야코시 | 엔타이시 | 중국 | 오슈시 | 브라텐방 | 오스트리아 |
| 미야코시 | 라트리니다드 | 필리핀 | 오슈시 | 로이테 | 오스트리아 |
| 오후나토시 | 팔로스데라프론테라 | 스페인 | 오슈시 | 쉐파톤 | 호주 |
| 하나마키시 | 핫스프링스 | 미국 | 시와쵸 | 서던다운 | 호주 |
| 하나마키시 | 베른도르프 | 오스트리아 | 시와쵸 | 포티지 | 미국 |
| 하나마키시 | 러틀랜드 | 미국 | 야하바쵸 | 프리몬트 | 미국 |
| 키타카미시 | 삼벤샤시 | 중국 | 카네가사키쵸 | 애머스트 | 미국 |
| 키타카미시 | 콩코드 | 미국 | 카네가사키쵸 | 창춘시 | 중국 |
| 쿠지시 | 클레이페타 | 리투아니아 | 카네가사키쵸 | 라인펠데비치 | 독일 |
| 쿠지시 | 프랭클린 | 미국 | 히라이즈미쵸 | 텐타이켄 | 중국 |
| 토노시 | 살레르노 | 이탈리아 | 오츠치쵸 | 포트 브래그 | 미국 |
| 이치노세키시 | 센트럴 하이랜즈 | 호주 | 야마다쵸 | 자이스트 | 네덜란드 |
| 카마이시시 | 디뉴레방 | 프랑스 | 이와이즈미쵸 | 위스콘신 텔스 | 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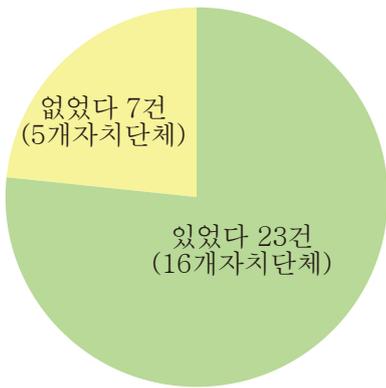
(출처)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 “자매 도시 제휴 일람표” http://www.clair.or.jp/j/exchange/docs/shimaiteikei-data_20130228.xls. (참조2013-3-29)

국제교류 상대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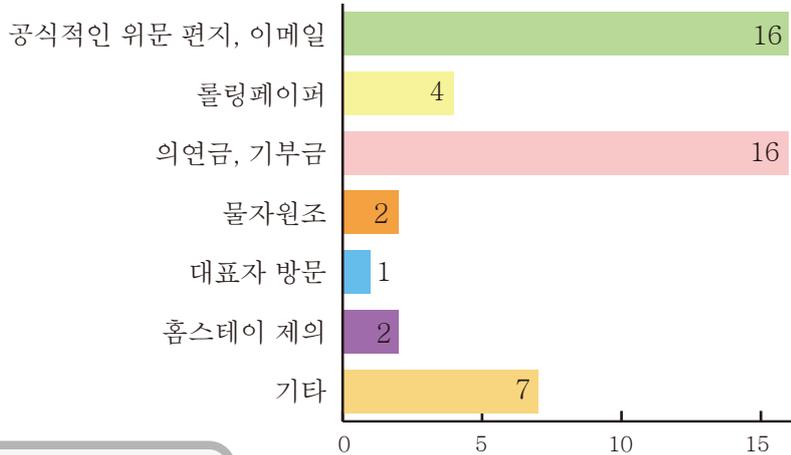
*상기의 ‘자매(우호) 도시 제휴 일람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특정의 도시, 지역과 교류하고 있는 사례를 포함함.

교류하는 있는 외국의 도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피재지가 아닌, 내륙도시에도 걱정하는 상대 도시의 위로와 의연금 등이 보내어졌습니다.



◎ 카마이시시와 디뉴레방시의 교류 ◎

카마이시시와 디뉴레방시는 카마이시시에서 개최된 산리쿠(리쿠젠, 리쿠쵸, 무즈), 바다박람회 상정 ‘암모나이트의 벽’을 개기로 1994년 4월에 자매 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의 교류는 수 년만에 끊겨, 자매 도시로서의 교류도 끊어졌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카마이시시가 큰 피해를 입자, 디뉴레방시에서는 시장의 제안으로 시청사에 조기를 계양하고, 시내 13개 학교에서는 묵념을 했습니다. 또, 홍보지에 카마이시시의 피해상황을 기재해 지원을 독려, 많은 지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또 두 도시 시장의 전화담화에서 디뉴레방 시장이 “이제부터도 될 수 있는대로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또, 자매 도시 관계의 재활성화에 힘쓰고 싶습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교류가 끊어져 있던 두 도시이지만, 상대 도시의 비상사태에 대해, 자매 도시로서 버팀목이 되어 도와주려 하는 디뉴레방시의 마음에 카마이시시가 대답하며,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상대 도시의 지원은 마음의 큰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자매 도시 교류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사토 토모코,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재해시 국제교류의 의의(1)~이와테현 자치단체 사례연구~”(이와테현립대학 종합정책 학회지, ‘종합정책’ (2013년 5월 게재예정))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 “제6회 자매자치단체 교류 표창 (총무대신상) 수상단체 사례소개” <http://www.clair.or.jp/j/exchange/docs/booklet-6th.pdf>. (참조2013-3-29)



이와테 식재료로 지역 활성화를!

쥘안즈 키친 샤톤 요리사 쥘안 산토스씨

인터넷 등으로 입소문이 퍼져 점심시간에는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샤톤”의 주방장, 쥘안 산토스씨. 계속해서 넘치는 아이디어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정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일하면서 요리 공부를 한 후, 일본에 와서 아즈마야에 취직해 일본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일본 요리는 심플하고 계절감이 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 봄에는 시원한 요리, 겨울에는 따뜻한 요리로 바뀌어서 재미있습니다. 양식에도 버섯이 쓰이지만, 계절감은 없다. 이 가게도 아즈마야의 계열이지만, 원래 찾집이었던 곳을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바꿨습니다. 왜 이탈리아 레스토랑인가?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만, 아버지의 선조는 이탈리아에서 브라질로 건너왔습니다. 이탈리아를 잊지 않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일본의 정월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걸 매주 있어서 안가면 싸웁니다(웃음). 친척이 이탈리아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그 곳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인기의 비밀

맛있는 음식은, 식재료와 요리사의 솜씨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테에는 바다와 산의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멀리서 부터 연료를 들여서 운반하는 수입 재료보다 신선하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요리사는 지역 농가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꾼 식재료를 받아 감사하게 조리한 맛있는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일에는 요리 전문잡지를 읽거나, 요리연구회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서 요리에 응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연구회의 동료와 남부파스타를 이용하는 이탈리아 요리사, 서로의 정보 교환으로 나아지려합니다. 저도 뭐든지 가르쳐줍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작은 가게이지만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이 공부하려고 찾아오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꿈

구워먹으면 맛있는 카치오카발로라는 치즈를 아쉽니까. 니노헤에 저지소를 방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키워, 맛있는 치즈를 만드는 목장에 카치오카발로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되서 곧 가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힘써온 분들과 저는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남부밀가루를 이용한 파스타를 만드는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리 관련 블로그 등을 보고 도쿄나 센다이 등지에서 와주시는 손님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골에 맛있는 요리를 먹으러 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이 지역 것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활성화되서 지역 분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쥘안즈 키친 CHATONS (샤톤)
 모리오카시 나카노하시토오리 1-3-20 (아즈마야 본점, 별관 맞은 편) TEL 019-653-0234
 이와테의 신선한 식재료를 맛 볼수 있는 본격 이탈리아 요리점.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에스닉 레스토랑 맵 제휴

이와테현인인 것을 의식하며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회장 치다 히로아키씨



이와테를 떠나, 낯선 브라질 땅에서 많은 노력을 한 이주자들이 설립한 이와테 출신자회, 브라질 현인회. 올해 8월 18일에는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이와테를 시작으로 먼 곳에서 손님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와테현인으로서의 의식을 전하고, 이와테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스하루씨가 힘쓴 현인회 창립

지금부터 55년전,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창립은 신문과 연감 등에서 이와테 출신자 이름을 찾아 명부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파울로, 주오지, 타주 등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조사 한 거리만 5만 km였습니다. 추가 조사 등으로 1500여 가족을 조사해서 현인 명부를 제작했습니다.

회원수는 많을 때는 300가족. 1977년에 작은 사무실을 구입. 1983년에는 현에서 회관 구입 보조를 받아 지금의 회관(1층 홀, 2층 사무실, 도서실)을 구입했습니다.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

현인회의 활동은 같은 고향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친목이 중심입니다. 가끔 만나면, 누구누구씨 잘있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중에는 사투리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회보는 회원, 해외현인회, 이와테 각지사체, 찬조회원 등에 450부가 발송되고, 현의 상황과 고향의 요리 소개, 사업, 현인동향 등을 전합니다. 모치마츠리와 완코소바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모리오카 냉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올해 5월 26일에는 완코소바 마츠리를 합니다. 7회째입니다. 완전히 정착되어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마츠리라는 큰 축제에서는 47개도도부현의 현인회가 한가지씩 향토음식을 내놓는데, 이와테현인회는 리쿠젠, 리쿠쥬, 무즈의 미역을 사용한 우동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곳에도 미역, 표고버섯,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될 수 있는 한 이와테산을 찾아



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한 동안 일본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인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일본의 맛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방에 있는 회원은 상파울로에 나오기가 힘들져 현인회와의 유대가 얽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참가 할수 없다고 탈퇴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회원이었던 분들에게도 3개월에 한번 회보를 보내, 현인회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할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힘을 빌려줍니다. (이와테에 체재한 적이 있는) 전 유학생, 연구생들이 도와주려 옵니다. 덕분에, 현인회 행사에는 젊은 사람도 참가합니다. 4대, 5대째가 되면, 여러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4대의 경우 증조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최대 16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의식은 부족합니다. 행사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 현인의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테의 젊은이들에게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 외국에 나가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세계를 아는 것이, 희망과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테현 출신이 아닌 일본의 젊은이들이 방문해도 환영하며, 현인회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테 문화의 소개로 특산품을 알려서 판매가 증진 되도록하는 것이 지진 부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테에 대한 것을 알려나가며, 조금이라도 빨리 피재지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A.C.A.Iwate Kenjinkai do Brasil
Rua Thomaz Gonzaga 95-M-Liberdade -
São Paulo-SP, Brasil CEP 01506-020
홈페이지 <http://www.iwate.org.br>
E 메일 iwate@iwate.org.br

치다씨의 아버지 야스하루씨가 찾아낸 이와테현 출신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1959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회원수 250명정도

2013 년도 협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 (개요)

2013 년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에서 2 년이 경과했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가설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피해지에서는 국제교류관계단체의 활동이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피해 외국인 상담과 피해지 국제교류단체의 활동 지원 등의 피해지 부흥 지원을 하는 한편, 동북 전체 부흥의 상징인 국제 리니어 컬라이더가 올해 중에 국내 후보지를 일체화 하는 움직임이 있어, 본 협회에서는 키타카미 산지가 건설지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국내외에 관련 정보 발신과 각종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제 리니어 컬라이더 유치 활동에 힘씁니다. 또, 일본과 미국의 학생이 교류하는 '제 65 회 일미학생회의'의 이와테 프로그램의 테마를 지진 부흥으로 선정, 실시를 지원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교류에 의한 지역 만들기', '차세대 인재 만들기', '지진피해지 부흥 지원' 등 4 개를 중심으로 각종사업을 전개합니다.

1 정보제공

다언어(일, 영, 중, 한) 홈페이지와 정보지 'jien go' (연 6 회) 등으로 국제교류관련 행사정보와 각종 생활 정보 제공, 기관지 '이와테국제교류' 발행(연 2 회) 등

2 일본어 학습 지원

재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어 개설연수회 개최 (카마이시시, 16 회), 재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지원 서포터의 연수회 개최 (2 회), 일본어 서포터의 등록 및 활용, 지역 일본어 교실 운영비 조성 (상한 8 만엔), 중급 이상의 일본어를 지도하는 중급 일본어 교실을 개설 (2 학기 각 12 회) 등

3 외국인현민의 생활지원

외국인 상담, 다언어 서포터 연수회 (재외국인을 위한 통역 연수 2 곳 각 5 회, 분야별 통역 연수 2

곳 각 6 회) 개최, 다언어 서포터의 등록 및 활용, 사비외국인유학생 장학금지급 (월 4 만엔, 10 명) 등

4 강좌, 연수

이와테글로벌컬리지 개최 (6 강좌), 국제이해 워크숍 개최 (5 회), 해외 체험, 유학 세미나 '이와테 청년 국제 학원' 개최, 인턴쉽 채용, 지역국제화 리더 연수회 개최 등

5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센터 운영, 외국인과의 교류회 '찾토랜드' 개최 (12 회),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 개최 (국제교류센터 외 2 곳), 친밀한 국제협력 페어 개최, 외국문화소개 강좌 강사 파견, 호스트 패밀리 등록 및 활용, 이와테국제화인재 등록 및 활용, 국제교류단체 활동비 조성 (상한 10 만엔), 해외와 네트워크 구축, 기획전 개최, 재해지역단체 지원 교류 이벤트 개최 등

6 해외연수원 등 모집

해외기술 연수원과 해외 자치단체직원 연수원의 서포트 등

수지예산 (개요)

2013 년도 예산은 경상이익은 총 7,708 만엔, 경상비용은 총 7,972 만엔 정도입니다만, 경상외이익으로 270 만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은 기본재산의 운용이익과 찬조회원 회비 (수취회비), 개인과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수취기부금), 이와테현의 위탁사업과 국제교류센터 업무운영 위탁금 (사업이익), 이와테현, (재)자치단체 국제화협회, (공단)일본교육공무원 흥제회 이와테지부에서 사업보조금 (수취보조금 등) 등에 의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은 사업비가 6,450 만엔, 관리비가 1,521 만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회계구분은, 공익목적사업회계분이 5,671 만엔, 수익등사업분이 778 만엔, 법인회계분이 1,521 만엔 정도입니다.

2013 년도 예산 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순재산 증감예산서 (개요)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단위 : 천원)

| 과 목 | 공익목적사업회계 | 수익목적사업등회계 | 법인회계 | 합 계 |
|-------------|----------|-----------|---------|-----------|
| 일반 순재산 증감부 | | | | |
| 1 경상증감부 | | | | |
| 경상이익 | 54,175 | 7,955 | 14,952 | 77,083 |
| 기본재산 운용익 | 9,864 | 0 | 9,864 | 19,728 |
| 수취회비 | 1,387 | 0 | 0 | 1,387 |
| 사업수익 | 18,857 | 7,216 | 0 | 26,073 |
| 수취보조금등 | 23,967 | 739 | 4,696 | 29,403 |
| 수취부담금 | 0 | 0 | 120 | 120 |
| 수취기부금 | 100 | 0 | 0 | 100 |
| 잡수익 | 0 | 0 | 272 | 272 |
|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 0 | 0 | 0 | 0 |
| 경상비용 | 56,715 | 7,787 | 15,218 | 79,721 |
| 사업지 | 56,715 | 7,787 | 0 | 64,502 |
| 관리비 | 0 | 0 | 15,218 | 15,218 |
| 당기경상 증감액 | 2,539 | 167 | 265 | 2,638 |
| 2 경상의 증감부 | | | | |
| 경상의수익 | 1,350 | 0 | 1,350 | 2,700 |
| 투자유가증권매각익 | 1,350 | 0 | 1,350 | 2,700 |
| 경상의비용 | 0 | 0 | 0 | 0 |
| 당기경상의 증감액 | 1,350 | 0 | 1,350 | 2,700 |
| 당기일반순재산 증감액 | 1,189 | 167 | 1,084 | 62 |
| 일반순재산 기수잔고 | 50,760 | 213 | 55,665 | 106,639 |
| 일반순재산 기말잔고 | 49,570 | 380 | 56,749 | 106,701 |
| 지정순재산 증감부 | | | | |
| 수취기부금 | 50 | 0 | 50 | 100 |
| 기본재산운용익 | 11,214 | 0 | 11,214 | 22,428 |
| 기본재산평가익 | 0 | 0 | 0 | 0 |
| 일반순재산의 대체액 | 11,214 | 0 | 11,214 | 22,428 |
| 당기지정순재산 증감액 | 50 | 0 | 50 | 100 |
| 지정순재산 기수잔고 | 512,146 | 0 | 512,146 | 1,024,292 |
| 지정순재산 기말잔고 | 512,196 | 0 | 512,196 | 1,024,392 |
| 순재산 기말잔고 | 561,766 | 380 | 568,945 | 1,131,093 |

(천원 미만은 생략)

여러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합니다.

-
-
-
-
-
-

외국인과 해외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이와테국제화인재 네트워크”에서 강사나 통역자의 소개, 이벤트 등에 국기와 나라별 물품 대여, 국제이해 워크숍의 소재 제공과 워크숍 개최를 지원합니다.

우선,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도 찬조회원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

취지에 찬동하며, 사업을 지지해주시길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조 회비는 현대의 국제교류·국제협력·다문화 공생의 공익 목적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회원 특전

협회 발행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정보지「jien go」

학생 회원은 Email 매거진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협회기관지「이와테 국제교류」

협회 주최 행사 등의 안내를 보다 빨리 안내해드립니다.

협회 주최의 이벤트나 세미나의 참가비가 우대할인됩니다.

「에스닉 레스토랑 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우대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개인회원...각 3,000 엔

단체회원...각 10,000 엔

학생회원...각 1,000 엔

협회의 소정 납부 용지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협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중급일본어교실 in 아이나

이와테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급 일본어 교실을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아이나)의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중급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는 재외국민이 더욱 높은 레벨의 일본어를 배워 생활과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최는 2 학기제로 1 학기는 9 월부터 11 월, 2 학기는 12 월부터 2 월, 각 12 회(주 1 회) 예정입니다.

▶ 이와테 청년국제학원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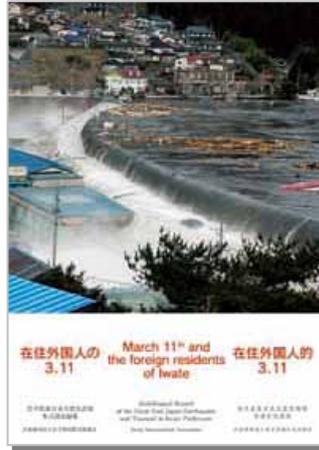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이와테 청년 국제학원 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10~20 대 청년입니다. 유학의 의의를 생각하는 강연 외에도 어학과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도 개최예정입니다.

|기부의 부탁|

협회는 현민 분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는 현재 거주 외국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국제협력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보다 충실히 진행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의 입장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에 기부했습니다. 협회의 활동을 장기적, 지속적,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재정 기반의 충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기부하신 분은 세법상의 손금 산입이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테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다언어 기록 집 재외국민의 3.11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의 현실을 전해 교훈을 잊지 않고, 이와테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이 안심, 안전하고 살 수 있게 이와테현의 재외국민들이 체험한 지진의 상황과 그 후의 생활 변화 등을 인터뷰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한 기록집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에 문의해주시십시오.

표지 사진

2012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 (2012년 11월 14일)

촬영 Jason Hill

국제교류센터 (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개관일 매일 개관시간 9:00~21:30 휴관일 연말연시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오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Email kikanshi@iwate-ia.or.jp